

무주, 단체관광객 유치 나섰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무주군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무주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국내·외 여행사(여행업 등록·경영)를 대상으로 '체류형 및 기차여행 단체 여행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투숙, 관내 음식점 2회 이상 이용, 30명 이상 체류형 국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외국인관광객 10명 이상) 1인당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를 지원하며, 코

레일과 협약을 체결한 여행사가 기차와 관광버스로 당일 관광지 2곳 이상,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30명 이상 유치를 경우에도 관광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최현희 관광마케팅 팀장은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반딧불이의 고향 무주, 태권도성지 무주를 알리고 마을로 가는 겨울축제와 스키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무주를 마케팅 할 생각"이라며, 이와 함께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잘 왔다,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지 정비와 서비스 확대 등 대응태세를 갖추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추진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공모 신청은 방문예정 7일 전에 관광계획서와 신고서 등을 무주군청 관광마케팅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www.muju.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문화관광과(320-2545) 또는 관광안내소(320-257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보건복지부 시행 '2018 응급 의료기관 평가'

진안군의료원 최우수 'A등급' 받아

시설·장비·환자중심성 등 7개 부문... 시·도별 1위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은 8일 보건복지부 시행 '2018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안군의료원은 8일 '2018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시·도·군 중심의 41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진안군의료원은 이 중 시·도별 순위 1위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의 법정 기준 충족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의 7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안전관리적절성, 직원의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환자만족도 조사,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부분 등에서는 전국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조백환 원장은 "전북 동부권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향후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10일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추진

장수군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장수농업 환경에 맞는 새 소득 작목 발굴과 경쟁우위 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읍면별 경쟁력 있는 주요 소득

작목 중심으로 군단위 통합교육과 읍면단위 교육으로 진행된다.

군단위 통합 교육은 농협경제지주 나종대 박사를 초빙해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목조직, 우수농산물관리 PLS 등 농산물생산과 유통에 대해 사례 중심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읍면단위교육은 읍면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진행되며 오는 11일 장

수농협에서 장수읍·사과를 시작으로 15일 산서면·양파, (면사무소), 16일 번암면·상추(면사무소), 17일 천천면·고추(면사무소), 18일 계북면·수박(주민자치센터), 22일 장계면·상추(문예복지관), 23일 계남면·오이(복지회관)에 대해 교육이 펼쳐진다.

오는 10일 오후 2시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는 '품목조직육성·유통 활성화방안', '농산물 우수관리(GAP) 주제로 공평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 정보 한눈에

진안군, 농림축산식품 분야 안내책자 발간

진안군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해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책자 1300부를 제작 배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사업 안내책자는 농업, 식품, 임업, 원예, 축산 분야의 총 131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다. 사업기간, 신청방법, 사업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군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 마을회관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포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 홈페이지(www.jinan.go.kr)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업 홍보 효과를 높여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희망의 집 고쳐주기' 25일까지 행복복지센터에 접수

장수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및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소의계층, 저소득계층 등 경제적 여건 등으로 주택 보수를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복권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보다 약 1억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 4억5000만원(복권기금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75동의 주택의 지붕개량, 화장실 보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 환경 개선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점검 운영일 부군수 차상위계층 방문도

무주군은 9일까지 관내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무주읍을 비롯한 안성과 적상, 설천면 소재 FEB 및 아치 관널 구조의 시설물로, 8일 점검에 나섰던 운영일 부군수와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원들은 대상 시설의 지붕 및 외벽의 변형, 비상구/대피로 상태 등을 살피고 시설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내교육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함께 점검했다.

또 독거노인과 기초 및 차상위 수급자, 가동불편 주민 등 관내 한과취약 계층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한과 대처 요령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일 부군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과 및 대설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며 "살마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나고 아차하는 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주민들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공유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8일 귀농귀촌 홍보동영상인 '농촌으로 오는 길'을 마이골영화관 제2관에서 공직자와 지역주민 40여 명이 함께 관람했다.

진안 귀농귀촌 '농촌으로 오는 길' 제작

지역주민과 홍보동영상 관람

진안군은 8일 귀농귀촌 홍보동영상인 '농촌으로 오는 길'을 제작하고 8일 진안 마이골영화관 제2관에서 공직자와 지역주민 40여 명이 함께 관람했다.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은 관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공무원과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로 자체 제작됐다.

농촌으로 오는 길은 △나눔이 있는 길(재능기부), △함께하는 길(동아리

활동), △농촌 창업으로 가는 길(팍파티), △만남과 소통이 있는 길(활동사례 공유), 등 총 4가지 길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으로 통화되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홍보 영상 제작과 상영을 통해 관내 각종 회의와 대내외의 진안군 귀농귀촌 프로그램 소개 등에 활용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도시민 유치활동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